

본 문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동국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서면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판, 게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2019년

온라인 모의논술 문제지(인문계열)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

성 명 :

◆ 답안 작성시 유의 사항 ◆

- ◇ 각 문제의 답안은 배부된 OMR 답안지에 표시된 문제지 번호에 맞춰 작성하시오.
- ◇ 각 문제마다 정해진 글자수(분량)는 띄어쓰기를 포함한 것이며, 정해진 분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 ◇ 답안지의 수험번호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시오.
- ◇ 답안은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오.(연필 사용 불가)
- ◇ 답안 수정시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하시오.(지우개,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 ◇ 답안지 본문과 여백에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어떤 내용 또는 불필요한 표시를 하면 감점 처리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과 고등 동물이 보이는 정신 능력의 차이는, 그것이 아무리 클지라도, 정도의 문제이지 결코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높은 정신 능력은 다른 지적 능력이 크게 발달하면서 부수적으로 생긴 결과에 불과할 수도 있다. (찰스 다윈, <인간의 유래>)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인간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등한시하고 동물이 아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을 과소평가한다. 사람들에게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선택을 내리며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똑같은 감정적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감정 표현을 숨기거나 비밀로 하지 않는다. 동물들의 감정 세계는 매우 공개적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느끼는 바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우리가 동물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알 길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이 주장은 더 이상 과학적 자료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려는 입장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인간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

예를 들어, 포유류는 감정 처리에 중요한 뇌 구조가 인간과 동일하다. 흥미롭게도 동물원이나 서식지 침범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동물들을 치료할 때 사람에게 적용하는 많은 심리 치료 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동일한 신경 구조 때문이다. 제임스 블라호스는 2008년 『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글에서 학대, 공격성, 분리 불안, 우울증 그리고 강박 장애 같은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람에게 처방하는 약물이 동물에게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동물이 본질적으로 살과 피를 가졌지만 인간의 감정이나 기억, 의식이 같은 측면은 하나도 없는 마치 자동 장치 같은 존재라는 엄격히 기계론적인 데카르트적 관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 동물이 사람에게 발병하는 것과 섬뜩할 정도로 비슷한 정신 질환을 겪는 것이며 똑같은 약물에 반응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다】 내가 그것들을 더욱 자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항상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외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나의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나의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 전자의 입장은 수많은 다양한 세계에서 드러나는 것으로서 동물적 피조물로서의 나 자신의 중요성을 완전히 없애 버린다. 즉, 나는 (우주의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지구에서 생겨나서 아주

잠시 동안 생명을 부여받았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가야만 하며 또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후자의 입장은 지성을 소유한 나 자신의 가치를 나의 인격성을 통하여 무한히 높인다. 나의 인격성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은 모든 동물과도, 심지어 감각계 전체와도 전혀 무관한 세계를 제시해 준다. (에링턴 <서양윤리학사>)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문제1] [가]에는 “인간과 고등 동물이 보이는 정신 능력의 차이는 정도의 문제이지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등장한다. [나]와 [다]에는 그 주장을 지지하거나 공박하는 논거가 나타나 있다. [나] 입장을 통해 위 주장을 옹호하면서 [다]를 비판하든가 또는 [다] 입장을 통해 위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를 비판해 보시오.

<유의 사항>

- 전술한 두 노선 중 수험생이 지지하는 하나를 택하여 논변하시오.

<12 ~ 14줄 (360 ~ 42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부가 중산층 육성에 골몰하는 이유는 건실한 중산층의 존재가 사회적 안정에 기초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구매력을 가진 대표적 소비층으로서, 중산층의 안정된 생활은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나라의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산층이란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산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경제학자는 소득을 중심으로 중산층을 분류한다. 예컨대 중위 소득의 50%~150%에 속하는 층을 중산층으로 규정지어, 50% 미만의 층을 빈곤층, 150% 이상의 층을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때로는 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직업, 교육수준, 재산, 주택, 그리고 귀속의식까지도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하기도 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재화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되더라도 사회 구성원의 소득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제력 격차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정부는 지나친 빈부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실업률을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경제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누진 소득세를 부과하고,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한다.

- 『고등학교 경제』

【다】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가구주는 52.8%였다. 이것은 1988년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2년 전에 비해 2.1% 포인트가 줄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중산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반면 ‘나는 하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42.4%에서 2011년에는 45.3%로 늘었다. 중산층과 하층의 비중 차이는 7.5%포인트에 불과했다. 1988년에 24% 포인트 차이였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라】 사회계층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구분하는데, 계층 구성원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층구조가 나타난다. 우선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는 상류층의 비율이 가장 낮고 하류층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중간층이 그 중간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는 상류층의 인구 비율과 하류층의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류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형태

이다. 모래시계형 계층구조는 중류층의 비율이 가장 낮고, 중류층 보다는 높지만 상류층에 비하여 하류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형태이다. 그리고 타원형 계층구조는 중산층의 비율에 비해 상류층과 하류층의 비율이 매우 낮고, 최상류층과 최하류층이 거의 없는 형태이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제2] 【가】~【다】를 참조하여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중산층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기술하고, 【나】의 누진소득세 제도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구조를 【라】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12 ~ 14줄 (360 ~ 42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작품 수용은 작품 자체의 세세한 결을 치밀하게 따져 읽는 섬세한 읽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섬세한 읽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섬세한 읽기를 통해 작품과 관련된 맥락을 발견하고 그 맥락에서 작품을 이해·감상 평가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맥락은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 등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과 문학작품이 이루는 관계를 말한다.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면 등장인물의 삶과 의식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작가의 창작 동기를 짐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작가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작품에 담기 위해 특정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선택하여 작품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 문학』

【나】 경찰범 처벌 규칙 -조선 총독부, ‘관보’(1912.3.25.)

제1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일정한 주소나 생업이 없이 이곳저곳 배회하는 자.
20.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온문서, 도서, 시가를 게시,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로 읊는 자
50. 돌 던지기 같은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시키는 자, 또는 길거리에서 공기총류나 활을 갖고 놀거나 시키는 자

사이토 마코토,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1920)

1. 친일 인물을 골라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2. 각종 종교 단체도 중앙 집권화해서 그 최고 지도자에 친일파를 앉히고 고문을 붙여 어용화한다.
3. 친일적인 민간 유지들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고,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4. 조선인 부호, 자본가에 대해 일본과 조선의 자본가 간의 연계를 추진한다.

- 『고등학교 한국사』

【다】 일찍이 윤 직원 영감은, 그의 소싯적 윤투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 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러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고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고요. 그런데…….(중략)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중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중략)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텡다 경찰서에 잡혀? 으응……? 오-사육시혈 놈이, 그 놈이 그 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자 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 패에 들어?”(중략)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야?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넌 다 지나가고 오……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 놈 보호히어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 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땡땡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여, 으응?”(「태평천하」)

- 『고등학교 문학』

【라】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소소한 언사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비등케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 구해야겠다는 자각을 주는 긴요한 동인이 될 뿐이다. (중략)

“실상은 쉬운 일이에요. 나두 이번에 가서 해 오면 세 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쿠리(苦力) 말씀요. 노동자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듯 웃어 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가련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으로 몸이 팔려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제, 나는 다시 한 번 그 자의 상판대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만세전」),

- 『고등학교 문학』

[문제3]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의 윤직원과 (라)의 화자 '나'가 보여주는 성격과 심리를 분석하고 두 인물이 지닌 세계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20 ~ 22줄 (600 ~ 660자)> [40점]